AI digest 2026-11-17

11월 17일 AI 아침 브리핑

국내 소식을 먼저, 국내 연구 성과와 건설·공공 현장 적용, 금융 검증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

1. 서울대, 인간 신경계 모사한 피지컬 AI…객체 인식 정확도 53.8%→88%

구분: 국내 AI 연구 / 2026-11-16, 인공지능신문 보도

-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김형신 교수팀이 뇌간·소뇌·대뇌의 기능 분담을 모사해 센서가 스스로 정보 품질을 조절하고 기기 내부 추론과 원격 고성능 추론을 연계하는 '인공 삼위지능(ATI)' 아키텍처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
- AI 모델 크기를 키우는 기존 접근과 달리, 센서가 현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부터 인식·판단 과정까지 통합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동형 카메라 실험에서 객체 인식 정확도를 기존 53.8%에서 88%로 높였고, 고성능 원격 AI 모델 호출 빈도는 43.3% 줄였다고 합니다.
- 연구팀은 모바일 시스템 학회 ACM MobiSys 2026에서 ATI 기반 이동형 물리 AI 프로토타입 시연을 선보였습니다.
- 주의: 성능 수치는 연구팀이 보고한 실험 결과이며, 상용 시스템에서의 독립 검증은 아직 없습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현장 센서가 스스로 촬영 품질을 조절하는 구조는 건설 현장 CCTV·드론 점검의 인식률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관점입니다. '더 큰 모델'이 아니라 '더 나은 입력'으로 성능을 올린 사례입니다.

이미지: 서울대 제공, ACM MobiSys 2026 데모 현장 사진. 출처: https://www.aitime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741

2. 캠코, AI로 개보수 현장 위험 요인 387건 찾아…국유건물 드론 점검도 시범

구분: 건설·BIM AI / 2026-11-16, 아주경제 보도
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건물 개보수 현장 21곳의 사진을 AI로 분석해 위험 요인 387건을 찾아 조치했습니다. 재정경제부가 16일 '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·고도화 계획' 추진 상황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.
- 캠코는 올해 현장 사진 AI 분석 위험성평가를 모든 개보수 현장으로 확대했습니다. 현장 유형별로는 위험시설 관련 162건, 방수 84건, 보수·보강 62건 순으로 확인됐고, 위험시설 정비와 시설물 보강 등 후속 조치를 마쳤습니다.
-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국유건물 5개 동에는 드론으로 건물을 촬영하고 AI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점검 방식을 시범 운영 중이며, 캠코가 발주·관리하는 건설사업장 2곳에서는 CCTV 영상 기반 실시간 감지 기술도 시험하고 있습니다.
- 주의: 387건 검출과 조치 완료는 캠코·재정경제부 발표 기준으로, AI 분석의 정확도(오탐·누락률)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드론·CCTV 방식은 아직 시범 단계입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사진 AI 분석을 '모든 개보수 현장'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띕니다. BIM 기반 시설 유지관리(FM)에 현장 사진 AI 점검을 붙이는 공공 부문 선례로 참고할 만합니다.

이미지: 기사에 실린 재정경제부 청사 자료 사진(아주경제 DB). AI 점검 현장 사진은 기사에 없습니다. 출처:

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61116082553035

3. 신한은행, 글로벌 학회 ICAIF 2026서 은행 특화 LLM·에이전트 검증 성과 발표

구분: 국내 금융 AI / 2026-11-16, 전자신문 보도

- 신한은행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AI 금융 학술대회 'ICAIF 2026' 워크숍에서 은행 특화 LLM 평가와 AI 에이전트 검증 연구를 발표했습니다.
- 공개한 'K-BankEval'은 여신·수신·외환 등 은행 업무 전문지식, 금융 문서 검색·근거 기반 답변(RAG), 도구 호출 등 6개 영역 5000개 문항의 벤치마크입니다. 6개 LLM을 비교한 결과 범용 성능이 좋아도 은행 업무별 수행 능력에는 차이가 있었고, 이를 통해 업무에 맞는 모델 선정과 취약 영역 진단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
- 함께 공개한 '에이전트 파운드리'는 AI 에이전트의 최종 답변뿐 아니라 도구 사용 적절성, 실행 과정 효율성까지 검증하는 플랫폼입니다.
- 주의: 평가 결과는 신한은행의 연구 발표 내용이며, 벤치마크 문항과 플랫폼의 외부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'업무 영역별 평가 문항 구축 → 모델 선정'이라는 K-BankEval의 접근은 건설사가 AI 도구를 도입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. 범용 벤치마크 점수가 아니라 자사 업무 문항으로 검증하라는 메시지입니다.

이미지: 신한은행 제공 카드뉴스. 출처: https://www.etnews.com/20261116000323